사형 제도 폐지에 한 뜻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형제 폐지법안 공동발의 동참 요청 서한 -

○○○ 의원님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로 언제나 보람있고 힘찬 의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축고 기나 긴 겨울을 견뎌내고 새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봄입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생명이 스스로 존귀하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셨으며, 세상의 모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고마워하는 것으로 존재의 인연을 맺어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에는 불성(佛性)이 있으며 부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엄하기에 어느 누구도 강제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불살생(不殺生)의 계(戒)를 으뜸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희대의 살인마 양굴리마라를 교화하신 후 보살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화를 통하여 진정한 참회를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UN을 비롯하여 세계 각 기관들의 연구 대부분은 사형 제도가 흉악범죄억제력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는 것도 두루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나라 또한 1997년 이후 실제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형제도를 더 이상 존치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찬반

논란만 거듭될 뿐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유인태의원님과 여야의 뜻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사형제폐지와 감형 없는 종신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각회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실행단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보살에 이르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형제폐지는 불교적 정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정각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디 이번에는 사형제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특별법안 발의에 동참해 주시고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을미년 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